10.15686/fkl.2026..68.6 OPEN ACCESS

초기『여성신문』연구(1988.10~1989.12)
-지면 체재·기획을 통해 본 '여성해방언론'의 탄생

정고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선임연구원

목차

1 서론
1.1 전사(前史)와 창간 배경
1.2 문제의식 및 논문의 구성
2 초기『여성신문』의 체재
2.1 인적 구성 및 지사
2.2 형식적 특징-표지, 지면, 광고
3 지면 외 기획
3.1 여성신문 교육문화원
3.2 여성문학상 제정
4 '일하는 여성'에 관한 보도·재현
4.1 남녀고용평등법과 취업 차별 보도
4.2 일하는 여성을 긍정하기-〈일하는 여성〉과 〈여성 일터〉
5 결론-'지면을 통한 여성운동'과 그 현실적 조건

이 논문은 여성신문사의 연구 지원을 받아 여성신문 연구팀(김정은, 윤조원, 임진하, 정고은, 정혜진)이『여성신문』을 함께 읽고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국문초록

이 글은『여성신문』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여성주의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여성신문』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 및 언론에서 주변부로 취급되어 온 여성의 목소리를 전면화하고 전체 여성을 대변하는 대안매체를 천명하며 탄생했다. 이때 가부장제를 배격하고 여성 소외와 비인간화에 저항하는 '여성해방' 언론으로서의 성격과 전체 여성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대중성'을 함께 견지하는 방향성은 초기『여성신문』의 전개 양상을 더욱 복합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여성주의 언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여성신문』은 지면의 크기, 표지 구성 방식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새로이 발명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페미니스트 기획을 적극적으로 배치했다. 또한 지면 외에서도 교육문화원을 통해 여성교양교육의 장에 뛰어들고, 여성문학상을 제정하여 여성해방문학의 창작과 수용을 독려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과 동시에 고용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흐름 속에서 '일하는 여성'에 관한 개별 보도 및 연재 기획이 이루어졌다.『여성신문』은 기존의 남성중심적 구조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터의 규칙과 문화, 법이 재구성되는 장면을 포착하고 여성의 일에 관한 여성주의적 담론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다. '운동성'과 '대중성'의 긴장 속에서, 초기『여성신문』은 당대 여성의 삶과 목소리, 여성운동의 실천을 종합하는 언론으로 존속하고자 했다.

국문핵심어: 여성신문, 여성주의 언론, 대안 매체, 여성문학상, 크리스챤 아카데미, 남녀고용평등법, 일하는 여성

아아 고난으로 얼룩진 비바람 속에서
볼 것을 환히 보고
들을 것을 똑바로 듣고
말할 것을 제대로 말하는
해방언론의 다리를 놓던 그 날[1]

1 서론

1.1 전사(前史)와 창간 배경



[그림1] 『여성신문』 1호에 실린 만평

1988년 8월 18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에서 '(주)여성신문사 창립 발기인대회'가 열린다. "한반도 오천년 역사 현실 속에서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부조리와 과오는 모든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소외와 비인간화 사실에 있"기에, "여타의 가부장권 문화를 철저히 배격함은 물론, 이를 초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 요인들을 여성해방적 시각에서 분석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언론 기능을 수행"[2]할 것을 천명하는 '여성해방언론'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여성신문』의 전신은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사회연구회 회보 〈여성사회〉(1978~1979)와 제호를 바꿔 격주간으로 발간한 소식지 〈여성신문〉(1985~1987, 총40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3] 1974년 시작된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중간매

1 창간 1주년 기념호에 실린 고정희의 축시 「자매여 우리가 길이고 빛이다-여성신문 창간 일주년에 부쳐」의 한 구절. 2025년 11월 11일에 열린 『여성신문』 창간 37주년 기념 포럼의 제목 '여성신문, 여성해방언론의 다리를 놓다'는 이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다.

2 「여성신문사 창립발기 취지문」, 『여성신문』 제0호, 1988.10.28.

개집단육성강화교육(중간집단교육)'은 노동·농촌·여성·종교·학생 5개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여성 부문은 지난 시대의 여성운동이 "소수의 의식화된 여성들이 엘리트주의에 빠져 여성운동 과제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여성대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4]는 문제의식 하에, 여성연극인, 여성단체, 교회여성, 여성언론인, 수녀, 근로여성 등 다양한 여성 주체들을 대상으로 삼아 실시된다. 주목할 것은 교육 활동 수료 이후 간사진과 이수자들이 모여 여성사회연구회, 여성해방노동자기수회, 교육동문회 등 다양한 후속 모임을 결성했다는 점이다. 여성사회연구회는 교육 이수자 중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1976년 창립되었으며(초대 회장 윤후정) 월례 연구모임, 신용협동조합, 소그룹 모임, 여성문화제 개최와 같은 활동을 하다가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으로 활동이 위축된다. 그러다 1985년에 당시 여성사회연구회의 회장을 맡았던 이계경이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격주간지 〈여성신문〉을 발행하였으며,[5] 이러한 노력이 1988년 국민주 모금

3 김효선 편,『세상을 바꾼 여성 사건 101가지-여성신문 뉴스 20年史, 한국 여성 20年史』, (주)여성신문사, 2008, 17쪽. 월간 회보 〈여성사회〉는 여성사회연구회 3기에서 발간되었는데, 4×6배판 8면으로 이경숙·고일선 회원이 편집을 맡고 8개월간 6호까지 발행되었다. 이후 7기(1985.1~1986.12)에서 〈여성사회〉의 속간으로 격주간지 〈여성신문〉이 발행(1985.10.14.)된다. 1985년에는 2천 부, 1986년에는 1천 부가 발행되었으며 1986년 말 구독자 수는 490명이었다. 편집위원은 박경희·현금자·손효경·김소양·김강자·정기영·김성숙·강은심·김주리·최오연·정혜경·박효신이며, 조기정년제 철폐·가사노동 가치 재평가·가족법 개정 촉구·시청료 거부 운동·여성의 자기 이름 찾기·미스코리아 등 미인대회거부운동·교육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돈 봉투 문제·공해 문제·성고문 사건 등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이정자,『이 얼마나 멋진 배움인가』, 여해와 함께, 2025, 140쪽, 156-158쪽.

4 이정자,「1970년대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성인간화 교육」,『젠더연구』제19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4, 6쪽.

5 여성사회연구회는 "아카데미 여성교육 이수자들 중 지식인 여성이 중심이 되어 동문 형식으로 만든 모임"으로서, 연구소를 주도하던 여성학자 윤후정, 이상화, 장필화 등이 중심이 되어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고 1984년 한국여성학회를 창립하는데 기여한다. 박인혜는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성 주체들이 기층여성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여성평우회(1983~1987)를 설립하는 등, 여성학 발전, 전 계층에서의 여성운동의 전개, 여성언론운동 등의 산실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박인혜,「'여성인권운동'의 프레임과 주체 변화에 대한 연구-〈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참조.

을 통한 '주식회사 여성신문'의 설립과 『여성신문』 창간으로 이어진 것이다.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흐름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낸다. 한겨레 신문 여론매체 위원이자 여성신문사 주주대표인 지영선이 '회지춘추전국시대'라고 언급한 것처럼, 1980년대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잡지뿐만 아니라 무크지, 노동조합 및 운동 단체의 회보 등 수많은 매체가 출현한 시기였다.[6] 특히 1987년에 들어 한국여성민우회의 『함께가는 여성』(1987년 창간)과 『사무직 여성』(1990년 창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민주여성』(1987년 창간),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일하는 여성』(1987년 창간) 등 여성운동 단체의 회지가 연이어 창간된다. 이러한 자체적 매체 창간은 『여성신문』 편집장을 역임한 황오금희의 지적처럼 "당시 언론은 여성운동 이슈나 뉴스에 대해 거의 무관심한 상태여서 여성단체들이 아무리 일간지에 보도자료를 보내도 한 줄도 다뤄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7]인 미디어 조건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성신문』의 발행 주체들은 『여성신문』의 위상을 어떻게 인식, 정립하고자 했을까. 이는 타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여성신문』보다 몇 개월 이른 1988년 5월 해직 기자들을 중심으로 국민주 공모를 통해 『한겨레』가 창간한다. 그러나 '국민대중의 입장' 대변을 표방한 『한겨레』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시각을 내세운 『여성신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고정희 물론이지요. 실제로는 평소 여성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큰 힘이 되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여성신**

6 1980년대는 단체 회지뿐만 아니라 대학 내 '여학생 교지(여성주의 교지)'의 시대이기도 했다. '여학생 교지'는 대학과 사회가 요구하는 '조신한' 여성성·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지만 1980년대 여성운동의 물결, 그리고 대학 내 총여학생(회) 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급진화되면서 '여성주의' 교지, '자치' 언론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원혜빈, 「1980년대 '여학생'의 문화정치-남녀공학 대학 여학생 교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참조.

7 황오금희, 「여성주의 매체와 여성운동」, 『여/성이론』 제8호, 도서출판여이연, 2003.6, 61쪽.

문〉보다는 '인권신문'이기를 강조하시더군요. 왜 꼭 여성, 여성 하느냐는 여운을 남기셨어요.

지영선 그게 아마 대다수 지식인 사회의 흐름일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끼리 단합하는 일에는 다소 개운찮은 복선을 깔아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신문이 인권신문에 포함될 수 없는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감이 좋을 것같군요.

고정희 그 문제는 더 쉽게 풀어서 **민주화 운동권과 여성해방 운동권에 내재하고 있는 미묘한 장벽이랄 수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해방운동의 전제는 여성해방이고 여성해방의 완성이 인간해방이지요.** 이 둘은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세계의 원으로 만나지요. 확실한 것은 바른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한 여성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고, 여권에 직면하고 있는 한 인권을 건너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중요성이 강조될 때는 여권이 괄호 안에 묶이는 것이 남성 중심사회의 관행으로 되어왔을 뿐 아니라 〈인권=남성〉이라는 등식을 조성해 왔지요. (…) 다시 말해서 여성해방운동은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 남녀해방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론이지요. (강조-인용자)[8]

지영선과의 대담에서 고정희는 『여성신문』이 '여성' 신문이기보다 '인권' 신문이기를 바라는 시각을 사회 일반의 남성중심적인 사고 및 민주화운동에 내재한 남성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비판하면서, '여성해방운동'은 여성만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해방이라 힘주어 말한다. 이 대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성신문』의 창간은 '민족·민주·민중'으로 대표되었던 민주화운동의 지배적 흐름과 서사에서 주변부로 취급되어 온 여성의 목소리를 전면화하겠다는

8 지영선(주주대표)·고정희(여성신문 주간), 「권두대담/0호를 내면서-한국여성 현실과 언론매체」, 『여성신문』 제0호, 1988.10.28.

방향을 내포하고 있었다.[9]

더하여 『여성신문』은 앞서 언급한 여성단체 회지 등과도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특정 단체와 그 회원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미디어의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이다.[10] "오히려 여성신문은 전문화되어 있고 첨예화되어 있는 '운동권'과 보통 여성들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리 역할 쪽에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읍니다."[11]라는 고정희의 발언처럼 『여성신문』은 '전체 여성', '여성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면을 목표했다.

여기서 '신문'이라는 명명은 여성주의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정론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목표와 연결된다. 『여성신문』은 발행 주기상으로는 주간지였으나 여성들의 교양과 흥미, 생활(가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은 여성잡지(여성지), 또는 『선데이 서울』처럼 여성의 얼굴을 내세워 '성'과 관련한 사건·사고나 유명인의 뒷담화를 자극적으로 제공하는 여타 주간지와는 차별화된 매체 전략을 구사하고자 했다.[12] 이는 일간지에 가까운 지면 크기나 코너

9 『한겨레』 송건호 사장과 고정희 주간의 인터뷰에서, 송건호는 여타 언론과 『한겨레』의 차별점으로 남북문제, 통일문제, '문목사 사건'을 꼽는다. 이 인터뷰에서 "그러나 민주화의 근본문제를 '여성억압 구조'에서 풀어나가려는 여성운동권에서는 한겨레가 매우 전근대적인 여성관을 심심찮게 표출하거나 또 여성해방 문제에 대해서는 여타의 남성집단들처럼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 합니다. 이에 대해 시인하실 수 있습니까?"라는 고정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송건호는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남성들은 여성해방을 지지하더라도 실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여성만큼 적극적일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내 생각입니다."라며 "한겨레가 감당해야 할 여성문제는 '여기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좌우된다"는 소극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송건호·고정희, 「"한겨레신문은 탄압이 통하지 않습니다"-창간 일주년 맞는 송건호 사장」, 『여성신문』 제25호, 1989.5.26.

10 초대 발행인 이계경은 자서전에서 10년 간의 여성운동 가운데 "여성단체들 사이에서도 제각각 이해득실과 명분의 차이로 인해 가족법이나 남녀평등고용법 등 여성운동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서조차 한데로 힘을 모으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에 "다양한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계경,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여성신문사, 2007, 77쪽.

11 지영선·고정희, 앞의 권두대담에서 고정희의 발언.

12 『선데이서울』의 매체 전략과 관련한 글로는 임종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제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을 참조. 단 여성 주간지와 여성 잡지의 성격을 단일한 것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이

배치 방식 같은 형식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 '여성의 일', '가족주의 비판', '여성비하 문화 비판', '여성해방운동', '교육 민주화', '공해추방운동', '통일운동에서의 여성 참여', '빈민 지역 탁아운동'과 같은 주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13]

1.2 문제의식 및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여성신문』의 여성주의 매체로서의 성격과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여성신문』의 창간 배경 및 초기 지면 구성, 지면 외 기획을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여성신문』은 1988년 말부터 2026년 현재까지 휴간 없이 발행되고 있는 주간지로서 유례없는 역사를 축적하고 있으나 언론, 문화,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이 매체의 성격과 의미를 조명한 선행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여성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역사를 조명한 단행본이나 기사는 대체로 '안동 주부 사건' 보도를 비롯한 성폭력·강간 문제 고발, 성폭력·순결에 관한 고정관념 변화를 위한 비판적 담론 형성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의제에 관한 체계적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4] 그러므로 『여성신문』의 여성주의적 매체 실천에 관한 역사적·문화론

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1970~80년대의 여성지가 단지 선정성과 흥미 위주의 잡지가 아니라 여성-주부 독자들이 자신의 욕구와 관심사를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독서·글쓰기의 장으로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오혜진,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1980년대 여성독서사와 '타자'들의 책읽기」, 『원본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홍지혜, 「1980년대 여성학·여성운동계 출판물과 여성지의 교착(交錯)-주부와 '가정교양', 『여성동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78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3 여기서 나열한 주제들은 0호부터 15호까지의 특집 기사 주제이다.

14 『여성신문』 2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세상을 바꾼 여성 사건 101가지 사건』에는 '안동 주부 사건'이 첫 번째로 다루어졌으며, 관련하여 '경찰의 다방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 ''부부강간' 문제 제기', '유년 성폭행범 살해한 김부남 사건', '국내 최초 이슈화된 의사 성추행 사건', '장애 여성 성폭력 첫 공론화', '대학 내 성폭력 학칙 개정운동', '시민운동가의 성추행 사건',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사건' 등이 주요 기사로 꼽혔다. 김효선 편, 『세상을 바꾼 여성 사건 101가지-여성신문 뉴스 20年史, 한국 여성 20年史』,

적 연구, 다각적인 주제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발행 호수 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창간 후 1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1988년 10월 28일 창간준비호부터 1989년 12월 29일 55호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초기 『여성신문』을 특징짓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던 '고정희 주간 체제'는 창간준비호부터 34호(1989.7.28.)까지 이어진다. 그럼에도 분석 시기를 초기 1년으로 넓힌 것은 고정희가 주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유지되는 지면 구성과 변화 양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 1년을 마무리하는 내·외부의 종합적 평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여성문학상과 같은 중요한 지면 외 기획을 연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먼저 이 글의 2장에서는 초기 신문의 인적 구성과 지사 설립, 표지나 광고 등의 형식적 특징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지면 외 기획으로 여성신문 교육문화원과 여성문학상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4장에서는 『여성신문』의 역사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을 위해 창립발기 취지문에 쓰인 다섯 가지 편집 원칙 중에서도 '일하는 여성' 주체가 보도·재현되는 양상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다섯 가지 편집 원칙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여성의 비인간화를 조장하는 가부장권 문화를 배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을 여성해방적 관점에서 분석·비판하며 대안을 모색 ② **가정과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체로서의 여성관을 재정립** ③ 민주적 가정문화 창달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세계 여성들의 삶과 고민을 나누는 장을 마련 ④ 한국 여성운동의 다양한 흐름과 실천적 주장을 수행, 연대의식을 고양, 여성의 잠재적 능력이 정치 역량으로 직결될 수 있는 여론을 주도 ⑤ 일상생활을 둘러싼 의제들-환경오염, 가정폭력, 성폭력, 공해문제, 자원고갈 문제와 소비자 보호 운동, 반핵 운동 등을 생명보호

(주)여성신문사, 2008. 마찬가지로 10년 뒤에 출간된 30년 기념 단행본 역시 '안동 주부 사건'으로 시작하여 '안희정 성폭력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김효선 편, 홍선희·송수산·이하나·진주원·이유진, 『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 여성신문사, 2018 참조.

운동 차원에서 적극 취급. (강조-인용자)[15]

여러 원칙 중에서도『여성신문』이 특별히 '일하는 여성' 주체를 언급했던 까닭은 1980년대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일·가정 양립이나 고용시장에서의 성차별 등이 폭발적으로 담론화되는 시기이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운동사적으로 소수의 엘리트 여성이 아닌 여학생(여대생), 여성노동자, 주부, 빈민 여성, 사무직 여성이 여성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발견·형성되는 시기라는 점과 연관이 있다.[16] 이와 같은 여성 범주의 탄생은『여성신문』으로서는 신문을 구독하고 읽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여성 대중 독자층이 늘어나고 세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1980년대 후반 '일을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여성 주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공통 경험이자 조건으로 자리 잡으면서『여성신문』이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로 부상한 상황을 포착하고, 초기『여성신문』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기획 연재 보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초기『여성신문』의 체재

2.1 인적 구성 및 지사

발행인 이계경·주간 고정희 체제『여성신문』(여성신문사)은 순한글 신문으로 매주 금요일 발행되었다. 창간준비호부터 9호까지 편집위원·칼럼위원·논설위원, 기자 및 광고·영업담당 등의 실무진의 명단을 마지막 지면에 매 호수 공개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생략했으며, 발행인을 비롯한 간단한 정보를 표지 상단에 싣

15 「여성신문사 창립발기 취지문」,『여성신문』 제0호, 1988.10.28.

16 강이수에 따르면 1980~1990년대 초반이라는 시기는 취업 여성, 특히 기혼 취업 여성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가족 영역이 실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여성의 이중 부담이 현실화하는 시기였다. 또한 고학력 여성의 취업 역시 늘어나 고용시장과 일터에서의 성차별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된 것 역시 1980년대의 일이었다. 강이수,「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페미니즘 연구』 제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7, 15-18쪽 참조.

는 것으로 대체했다. 편집위원, 컬럼위원, 논설위원의 경우 여성학·사회학·국문학·인류학·법학·사학 등을 아우르는 페미니스트 학자, 당대 여성 작가, 일부 남성 지식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크리스챤 아카데미, 또하나의문화 동인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주간을 맡은 고정희가 존재했다.[17] 고정희는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출판간사를 역임하였으며 조형·조은·조옥라·조혜정·장필화·김애실·박혜란과 함께 또하나의문화 동인으로 활동했다. 편집위원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들은 이화여대를 비롯한 대학에서 여성학을 연구하던 여성 지식인 집단과도 교집합을 이뤘으며, 평우회 등 1980년대 주요 여성운동 단체를 이끌었다.

편집위원	김경애(이대, 여성학), 박혜란(상명여대 강사), 이상화(이대, 철학), 이은영(외대, 여성학), 장필화(이대, 여성학), 조형(이대, 사회학), 차미례(전 출판저널 주간)
컬럼위원 (3개월 교체)	문정희(시인), 오정희(소설가), 장필화(여성학), 황루시(국문학)
논설위원	이태영, 한완상, 이명현, 최열, 김주연, 한명숙, 조은, 조옥라, 조혜정, 이효재, 이인호, 송보경, 김애실, 한준상
발행인, 주간, 실무진	이계경(발행인), 고정희(주간), 박효신(편집부장), 배문성(취재차장), 이은희·이미숙·정혜옥·박혜숙·신혜선(기자), 김효선(객원기자), 유세종·이동희(제작담당), 김수자(영업관리이사), 이상덕(관리부장), 한명수·김경희(광고담당), 손미향(영업담당), 김순옥(총무), 서기 2000년 디자인 하우스(편집디자인), 박민자·조민수·양진필(디자이너), 김훈래(아트디렉터), 윤석남·김진숙(표지그림)
발행 정보	문화공보부 등록 다-531 등록일 1988년 4월 30일 발행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7-33 (주)여성신문사 인쇄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전산사식 성암기획 값 600원

[표1] 1호에 수록된 위원 및 실무진 명단, 발행 정보

17 김정은, 「1980년대 여성주의 출판문화운동의 네트워킹 행위자로서 고정희의 문화적 실천」,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62쪽.

여성신문사는 창간 이후 전국에 지사를 세우게 되는데 4호(1988.12.23.) 지사 모집 광고에는 1988년 12월 8일 현재 지사가 확정된 지역으로 부산, 전주, 목포, 춘천, 대전, 제주를 나열하고 있으며, 8호(1989.1.27.)에는 대구, 청주, 광주, 평택 지사(1월 18일 현재 기준)가 추가되었다. 이들 지사(장)는 〈지방 소식〉 기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함께 했다. 42호(1989.9.29.)에는 "각 지방의 여성계 소식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며 아울러 각 지역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주재기자를 두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광주, 전주, 청주, 울산, 제주, 마산, 춘천, 원주, 부산)"한다는 공지가 쓰였는데, 주재기자 중 일부는 지사장과 겹치기도 했다. 55호(1989.12.29.) 「지사장의 89년-여성신문 전국지사 이렇게 뛰었다」에서 초창기에 밝혀진 지사 외에도 울산, 동해, 조치원, 원주에도 지사가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8]

2.2 형식적 특징-표지, 지면, 광고

『여성신문』은 일반적인 신문 지면인 기획·연재 기사, 취재 기사, 특집 기사, 사설, 문화란(새로 나온 책, 문화 정보 게시판, 예술마당·문화마당, 문화주평, 응접실 등), 만평, 광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어떻게 지면을 분배·배치할 것인가는 『여성신문』이 '운동성'을 고수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신문사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였다. 초기 『여성신문』은 "운동적 성격과 제도권 신문 중간에 위치"(지영선)한다는 복합적인 지향성을 지면에 구현하기 위해 "30% 미만이 광고지면으로 할해[애]되고 20%는 여성신문의 의도를 담은 '의식화' 쪽의 특집이나 현장취재, 나머지 20% 여성문화, 생활 환경. 나머지는 누구에게나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고정희)[19]의 비율로 지면을 할당하고자 했다. '의식화' 쪽의 지면으로 〈특집〉과 〈현장취재〉가 언급되었으나, 여성주의 대안매체로서의 지향성은 표지에서부터 전면화된다.

---

18 한편 〈해외구독 캠페인〉 광고도 여러 번 실리는데, 동남아시아, 북미, 서구라파, 중동, 대양주, 아시아, 동구라파, 아프리카, 중남미, 서인도제도, 남태평양을 아우르는 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실제로 얼마만큼의 해외 구독자가 확보되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19 「권두대담/0호를 내면서-한국여성 현실과 언론매체」, 『여성신문』 제0호, 1988.10.28.

상단에 제호를 쓰고 1면 기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간지 형식이라고 한다면, 『여성신문』은 〈특집〉 기사 제목과 함께 편집주간이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와 〈목차〉가 함께 배치되는 독특한 표지 형식을 발명했다. 익히 알려져 있듯 『여성신문』의 표지 그림은 윤석남, 김진숙, 김점선, 정지영 등 당대 여성 미술가들의 그림으로 채워졌으며 18호부터 고창수 등 여러 사진작가의 사진이 실렸다. 이러한 배치가 가능했던 것은 타블로이드 변형판 크기로 인쇄되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여타의 잡지 및 주간지와 달리 긴 분량의 활자가 표지에 함께 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20] 특집 기사 및 주요 기사 〈목차〉,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표지 그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표지형식은 해당 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13호(1989.3.3.)는 소쿠리를 한 손에 들고 물을 건너려 하는 여성의 뒷모습을 그린 유성숙 작가의 '진퇴양난의 농촌 어머니'를 표지그림으로 수록했는데,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농민의 아픔과 치유정책'을 제목으로 하여 농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으며 〈기획진단〉으로는 여성 농민의 건강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신문 1면에 고정희 주간과의 대담인 〈만나고 싶은 사람(권두대담, 권두 인터뷰, 금주에 만난 사람)〉를 배치한 것은 『여성신문』의 고유한 특징이다.[21] 박경리(1호)·법정스님(2호)·이효재(6호)·안병무(8호)·신경림(10호)·김

20 한 기사에 따르면 1988년 8월 남이섬 워크숍에서 전반적인 편집 구상이 이루어졌고 이때 『출판저널』 판형을 참조하여 타블로이드 변형판으로 인쇄 크기를 결정했다. 이은경, 「'여성신문'의 창간 작업」, 『여성신문』, 2007.11.16. 여기서 언급된 『출판저널』은 1987년 창간된 격주간 서평 전문지로, 타블로이드판으로 인쇄되었다. 『여성신문』의 내부 편집 디자인 역시 『출판저널』을 참고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21 여기서 지칭하는 1면이란 표지와 전면광고 이후 첫 번째 지면 기사이며 신문 면수로는 3면에 해당한다. 2002년 3월 셋째 주간 여섯 개 중앙일간지(『조선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의 1면에는 정치권과 정치인 관련 기사를 포함한 정치 기사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북한 및 통일, 경제, 사건/사고, 국방/병역, 집회/시위 등의 기사가 뒤를 이었다. 그에 반해 여성 관련 보도는 2건(1%)에 그치고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2000년대 신문 지면에 관한 분석이며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이 있긴 하나, 신문 1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타 언론과 구별되는 『여성신문』의 위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유선영,

수환(11호)·백낙청(15호)·송건호(25호) 등 당대의 지식인·작가·운동가 그룹을 주된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지면은 고정희가 주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표지와 1면 대담뿐만 아니라 여성 인물의 삶과 역사를 소개하는 〈일하는 여성〉·〈해외 여성〉·〈이야기 여성사〉,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재)해석하고 논평하면서 논쟁적인 지점에 관한 조언과 해법을 제시하는 〈성교실〉·〈정의반 씨에게 털어놔 보세요-여성신문 상담실〉·〈이런말 쓰지 맙시다〉·〈청모퉁이 홍모퉁이〉 등은 여성주의적 성지식, 언어, 관점을 설파하기 위한 『여성신문』만의 독자적인 기획력을 보여주는 코너였다. 그 외에도 서울 중심의 여성운동을 극복하고자 한 〈지방 소식〉, 1980년대 운동의 핵심 거점이었던 대학과 대학 내 민주화 문제에 주목하는 〈대학의 소리(캠퍼스 화제, 대학가 통신)〉, 독자와의 상호 소통 강화를 위한 〈독자발언대〉가 존재했다.[22] 『여성신문』의 지면 크기, 표지 구성 방식, 지면의 체재는 신문 매체가 갖는 일반적인 기사 보도 역할에 더하여, 페미니스트 '기획'을 전면에 배치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창간호부터 이어진 표지 형식은 16호(1989.3.24.)부터 점진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먼저 16호에는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표지 그림-목차 배치는 유지되지만, 타이포그래피를 자세히 보면 글씨 바탕에 색을 입히는 디자인이 눈에 띄게 늘어나며, 이 변화는 이후에도 지속된다. 또한 17호(1989.3.31.)부터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없어지고 양옆에 사진과 목차가, 아래에도 목차가 배치되는 형태로 바뀌며 18호(1989.4.7.)호부터 그림이 사라지고 사진이 중앙 전면에 배치된다. 18호부터 시작된 이 형태는 35호(1989.8.4.)까지 이어지다가, 36(1989.8.18.)호부터는 목차를 배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23]

『여성과 언론-여성보도 개선방안 연구-중앙일간지와 〈여성신문〉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언론재단, 2002, 69-73쪽 참조.

22 『여성신문』는 독자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변화를 모색했는데, 19호(1989.4.14.)에는 "'포장보다는 질에 충실하라'는 독자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받아들여 인쇄용지를 비코트 알파에서 신문용지로 변경한다는 공지가 실렸다.

23 본문에 삽입한 표지 그림의 위아래가 일부 잘려 있음을 밝힌다.



[그림 2~6] 『여성신문』의 표지 변화(왼쪽 상단에서부터 창간호, 16호, 17호, 18호, 36호)

30호대 중반부터 관찰되는 여러 변화는 고정희 주간 체제(0~34호)가 끝나는 시점과도 맞물린다. 예를 들어 38호(1989.9.1.)에는 '혁신적인 지면 개선 단행'에 대한 알림이 실린다. 지면 개선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 〈가정은 변화하는가〉, 〈여성생활박물관 탐방〉 등 가정 관련 기사량을 대폭 늘림 ② 남성 독자를 위해 〈남성연구〉, 〈남으로 부터의 편지〉 등을 편성 ③ 주부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각종 생활정보, 공해 및 소비자문제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룸 ④ 주부칼럼 〈생활속에서〉, 각종 문화정보와 백화점·○텔 행사 소식, 여성계 단신을 〈문화광장〉으로 묶음 ⑤ 〈시사칼럼〉, 〈여성관련정책부서 탐방〉, 〈여성해방의 관점으로 쓰는 예술사〉, 〈여기가 내자리〉, 여성 문제 만화 신설 등이다. 여기서 ①, ③, ④의 변화는 독자층의 주요한 축이 주부 독자였음을 시사한다.[24] 또한 초창기 〈남성 칼럼〉이나 〈내가 잘하는 요리〉처럼 남성 필자를 내세워 남성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지면 역시 조금씩 변주되어 지속된다. 이러한 지면 변화 시도는 궁극적으로는 넓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독자층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광고의 양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신문사가 직접 내건 광고 외에 제품, 기업, 행사 광고가 30호 대 초반에는 다섯 개 정도였으나, 36호부터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광고가 하나 수록되는데 바로 36호부터 여성신문사가 내건 '광고 컨설팅 광고'이다. 여기에는 "완전한 광고를 하고 싶습니까? 안전한 광고를 하고 싶습니까? 광고안전! 광고의 승패를 좌우하는 대중의 눈은 여성. 여성을 먼저 생각해야 "광고안전"이 돋보입니다."라는 문구 하에, 광고주와 독자 모두에게 발신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다.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광고.
잘못하면 돈을 더 버리는 광고.
광고는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신문"은 여러분의 광고를 신문에 앉힐때
먼저 안전을 생각합니다.
통 광고건 쪽 광고건 어디—1쪽 부터 24쪽—에 앉혀 놓더라도
독자분들의 눈에 얼른 띄어 읽히도록
도드라진 자리를 잡아 드립니다.
(…)
되도록이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담은 유익한 생활정보를
그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정직하고 상세한 내용으로, 또 친절하고 밝은 표현으로

24 최이숙에 따르면 1960~70년대 일간지 여성가정란의 주요한 프레임은 '가정관리'로 가사노동, 양육, 가족 건강 등을 여성 주체와 연결하고 특히 여성을 절약과 소비의 주체로 연관지었다. 최이숙, 「1960~1970년대 한국 신문의 상업화와 여성가정란의 젠더 정치」, 『한국언론학보』 제59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15 참조.

독자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십시오.[25]

위의 인용문은 광고주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일부이다. 먼저 여성신문사는 광고주에게 "한국언론 사상 처음으로 귀사의 헤드라인 테스트를 무료로 해드립니다"라고 제안하면서 광고 컨설팅을 통해 '완전하고 안전한' 광고를 수록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역설한다. 더불어 광고를 읽는 십만 애독자들을 "그 자리[광고-인용자]를 허락해 주시는 분", "여론 지도자", "구매자의 7할을 차지하는 여성고객의 구매 지도자"로 호명하면서 이 신문에 광고를 싣는 것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반대로 광고를 보는 독자들에게는 "여성을 업신여긴다고 보신 것은 저희 광고국으로 연락해 주세요. (…) 여러분께는 따질 권리가 있습니다."[26]라고 단서를 달아둔다. 이렇게 양쪽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독자들이 『여성신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동시에, 광고주로 하여금 광고 상품의 잠정적 구매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음을 소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광고의 하단에 작게 실린 정보를 통해 『여성신문』의 실제 독자층(구매층)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 애독자 계층/전문직, 사무직 여성 가정주부 • 부정기 독자계층 • 연령별 구분/20-50대 • 소득별 구분/ 월 평균수입 50만원 이상의 중산층 • 여성신문을 필독하는 계층/각 여성단체 회원, 각 정당과 지구당원, 정부산하 여성담당 부서[27]

하지만 상업성을 제1의 목표로 삼는 광고의 특성상 『여성신문』이 가지고 있는 '여성해방'의 지향성에 온전히 부합하는 광고를 수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

25 「완전한 광고를 하고 싶습니까? 안전한 광고를 하고 싶습니까?」, 『여성신문』 제36호, 1989.8.18.
26 위와 같음.
27 위와 같음.

다. 예를 들어 51호부터 실린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의 광고는 "약간의 투자로 분위기를 바꿨다. 오늘 저녁 남편의 표정을 빨리 보고싶다./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좋은 아내가 지녀야 할 조건. 여자는 때때로 작은 변화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문구를 내걸었는데, 이러한 재현은 남녀 성별분업, 주부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온 『여성신문』의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여성신문』의 지면 구성 및 형식적 특징은 대중성(상업성)과 운동성의 병존과 긴장을 드러낸다. 여성 정치, 통일, 주부의 삶, 여성해방운동 등을 주제로 삼은 특집을 비롯한 지면 대부분이 '여성해방언론'이라는 기치 아래 기획, 배치되었으나 주간지를 발행하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조건은 계속해서 여성주의 대안 매체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었다. 발행 1년을 맞아 이계경 발행인은 "기사, 논조도 「세미나 노트 아니면 불평불만분자들의 사나운 외침이냐」는 평"[28]을 받았으며, 3개월 만에 국민주로 모금한 자본금이 바닥나고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회고하기도 했다.[29] 그럼에도 대중성과 운동성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지 않고 지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모색을 꾀한 노력이야말로, 초기 『여성신문』의 성격과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지면 외 기획

3.1 여성신문 교육문화원

『여성신문』의 여성주의적 기획이 지면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여성신문사는 '여성신문 교육문화원'을 통해 당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던 여성사회교육의 장에 뛰어든다. 1980년대에 들어 여성 전반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28 김유경, 「초대석-창간1돌맞은 週刊 「여성신문」 발행인 李啓卿씨-"여성의 人間化", 行間마다 큰목소리」, 『경향신문』 1989.12.7.

29 이계경, 앞의 책, 96쪽.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광고 유치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주의 저널리즘 매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명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현황과 확산 전략」,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01, 433쪽.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교양·교육에 대한 여성 주체의 열망이 취미·여가, 직업 개발 교육, 사회 문제, 문학·글쓰기, 외국어, 자녀 교육 등을 아우르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당대 여성사회교육 중 여가·교양교육기관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 주체도 여성단체, 여성회관, 대학 부설 사회교육기관, 교육부 소관 학교단위 주부교실, 농협 주부대학, 문화센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30] 관변단체를 비롯하여 YWCA/YMCA, 여성단체, 재야단체, 심지어는 '대기업 주부교실'[3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했으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여성문화센터나 주부교실을 개설·후원하고 있음이 보도되기도 했다.[32]

이와 같은 세태에 대해 『여성신문』은 언론사나 백화점이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대부분 취미 분야 일색이거나 중산층 가정의 집치장 붐에 편승하는 강좌가 열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막상 부업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수련 기간이 뒷받침되지 않아 직업적 재교육 및 부업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여성·주부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33] 여성신문 교육문화원 임인옥 원장은 '여성'이

30 한국여성개발원 편, 『여성백서 1991』, 한국여성개발원, 1991, 128-131쪽. 구체적인 통계가 남아 있는 주부교실의 경우 1989년 현재 교실 수 248개 수강자 수 191,72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의 경우 1989년 현재 회관 수 13개 기술보도사업(편물, 수예, 미용 등) 30,168명 교양강좌 50,073명이 수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1 「대기업 주부교실 확산」, 『조선일보』 1988.4.1.

32 기사에 따르면 평민당 이상수 의원이 자치구인 중랑구 면목동 지구당사무실에 '여성상록회 부설 주부대학'을 열었으며, 평민당 양성우 의원이 목동에 '양천여성 문화센터'를 개설했다. '여성상록회 부설 주부대학'에서는 국어, 산수, 한문, 영어 등을 가르쳤는데 한글을 깨치지 못한 무학자, 국민학교 고학년 수준의 산수와 중등 수준의 한문과 영어를 가르쳤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지역 주부대학을 수강하는 여성들의 학력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양성우 의원이 개설한 센터의 경우 서예, 일어, 영어, 손뜨개, 꽃꽂이, 노래 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는데 취재 당시 1천여 명의 수강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지역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문화사업으로 표밭다지는 선량들-'여성문화센터' '주부대학' 잇달아 개설…긴 안목의 '실표' 노려」, 『여성신문』 제15호, 1989.3.17.

33 「문화센터의 '여성 문화' 문제 있다-평생교육 빙자한 주부 대상 취미 강좌 뿐」, 『여성신문』 제26호, 1989.6.2.

붙는다고 해서 모두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성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여성들에 맞는 직업을 개발, 사회참여 욕구를 바르게 실현"함과 동시에 주부노동을 재인식" 시킨다는 목표를 밝히고 "요즘 우후죽순처럼 이곳저곳에 생겨나는 여성 문화센터와는 질적으로 다"[34]른 여성 공간을 표방했다.

광고를 통해 확인되는바, 교육문화원의 목표는 크게 직업 개발 교육, 여성 의식 교육, 취미 강좌, 자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었다. 38호에 실린 '교육문화원 9월 교육' 광고를 통해 직업개발교육 과목으로 이동육아인교육과 칼라수지공예, 생활교양교실 과목으로 여성학, 여성시사강좌, 비디오 강좌, 생활 한자 등, 문학교실 과목으로 소설창작과 시나리오 작법이 모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35] 이때 직업개발교육의 경우에는 단순 취미가 아니라 부업이 가능하고 취업과 연결될 수 있음이 강조되었으며, 교양 과목에서도 취미 및 부업의 기회 창출, 실기 위주의 지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소개하였다.

여성학 강좌의 경우 "여성신문 교육문화원(558-0262)이 9월부터 마련한 여성학 교육과정도 '여성학'이 주부들에게는 외면당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주부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36]는 『한겨레』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실제로 유효한 규모의 수요층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주부들의 취업참여 확대를 위한 가정경영 관리사 교육", "지방자치제 시대를 앞두고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확산코자"하는 "정치시사강좌"[37] 또한 모집되었다. 이처럼 여성신문 교육문화원은 여성의식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취업이나 부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

34 「"여성직업 개발이 급선무입니다" 여성신문 교육문화원 개원하는 임인옥 원장」, 『여성신문』 제31호, 1989.7.7.

35 여성신문 교육문화원 광고, 『여성신문』 제38호, 1989.9.1. 교육문화원의 경우 실제로 어떤 시기에 어떤 과목들이 운영되었으며 수강생 수는 어느 규모였는지에 대한 내부 자료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여성신문』 및 다른 신문에 실린 광고를 통해서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강사진의 경우 여성학 강좌는 조순경, 이영자 등 현직 교수가, 문학교실의 경우 이경자, 엄인희 등의 여성 작가들이 담당할 것으로 광고되었다.

36 김미경, 「주부 대상 취업강좌 인기」, 『한겨레』, 1989.10.11.

37 여성신문 교육문화원 광고, 『여성신문』 제45호, 1989.10.20.

3.2 여성문학상 제정

한국에서 신문 매체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신춘문예나 문학상의 운영 주체라는 점이다. 2026년 현재 조선일보 동인문학상, 한국일보 한국일보문학상을 비롯하여 동아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문화일보 등 여러 신문사에서 신춘문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문학상은 1989년 제1회부터 1995년 제7회까지 시행되었다. 『여성신문』에 여성문학상 현상모집 광고가 처음 실리는 것은 36호(1989.8.18.)로, "기성·신인을 막론하고 여성신문 취지에 찬동하는 여성"으로 응모 자격을 두었다. "참다운 **여성해방문학**이 드문 우리 문단에 새로운 활기를 지펴줄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강조-인용자)"한다는 모집 문구에서 '여성해방문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여류문학'으로 불리며 탈역사적·탈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폄하되어 온 '여성문학'을 재구축하려는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론)과의 연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38]

제1회 여성문학상 응모작 및 수상작은 '작품성' 및 '여성해방'이라는 기준에서 심사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39] 소설과 동화 부문은 당선작이 없었는데 "소설 부문에서는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문학이면서

38 『여성신문』과 당대 문학장과의 연결고리에서 '또하나의문화'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또문' 동인지 3호 『여성해방의 문학』(1987.4)에 수록된 많은 작품의 주요 제재가 '매맞는 아내', '아내폭력' 등으로 논해진 젠더 폭력 문제였다는 사실은 『여성신문』이 창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보도하고 추적해 왔다는 사실과도 맞닿아 있다. 고정희가 '하빈'이라는 필명으로 『여성해방의 문학』에 수록한 단편소설 「학동댁」이 『여성신문』 0호에 재수록되기도 한다. 『또 하나의 문화』가 사회운동의 가부장제를 비판하면서 "삶이 곧 운동"이라는 테제를 내걸고 생활세계의 의미체계 자체를 바꾸어내는 실천 방식으로 글쓰기(문학)를 주장했다고 한다면, 『여성신문』의 글쓰기 및 '여성문학상' 운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의미화할 수 있다.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제47집, 상허학회, 2016의 3장 '여성해방문학의 주창과 또 하나의 문화'를 참조.

39 제1회 여성문학상 시상식은 『여성신문』 창립 1주년 기념식(12월 2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과 함께 열렸으며, 수상작 및 심사평, 수상자 인터뷰는 제51호(1989.12.1.), 제52호(1989.12.8.), 제53호(1989.12.15.)에 실렸다.

수상작	동행자	정민자 (용산구 동부 이촌동 공무원 APT)	수필부문 가작
	날 아세요?-결혼일기 1	김경자 (노원구 하계동 극동 APT)	시부문 가작 1위
	가마타기-각시 하회탈 1	박옥영	시부문 가작 2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유명숙 (서초구 서초동)	수기부문 가작
	소설, 동화 부문 당선작 없음		
심사평	여성끼리의 연대감 돋보여	심사위원 박혜란	수필 심사평
	좀 더 매진하기를	심사위원 최일옥	소설 심사평
	참신한 작품 아쉬워	심사위원 박혜란	동화 심사평
	자기발견이며 노래이어야	심사위원 고정희	시 심사평
	'성차별 극복의지'가 기준	심사위원 우명미	수기 심사평
응모작	시 91편(45명), 소설 7편(단편 6편 중편 1편), 희곡 1편, 수필 17편(16명), 수기 5편, 동화 4편 응모자 78명(서울 거주자 23명, 지방 거주자 55명), 응모작 125편		

[표2] 제1회 여성문학상 수상작, 심사평, 응모작 수

소설적 틀을 갖춘 작품을 찾으려 했"(소설 심사평, 최일옥)으나 마땅한 작품이 없었다거나 "보다 참신한 작품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수상작을 내지 않기로 하였다."(동화 심사평, 박혜란)[40]는 심사평에서 알 수 있듯 응모작들이 기성의 내용을 답습하거나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고정희는 시 심사평에서 "응모자들이 여성신문의 '여성 문학상'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최소한의 시상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수준 이하의 미달작"이라며 강한 어조로 응모작들을 혹평한다. "여자들의 칭얼거림이나 감상을

40 「창간 1주년 기념 "여성 문학상" 수상 작품」, 『여성신문』 제51호, 1989.12.1.

적는 것이 여성문학은 아니다."[41]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성차별과 가부장제의 억압을 깨는 의식적 지향점으로서의 '여성해방문학'에 부합하지 않는 시들이 많았음을 예상하게 한다.

그럼에도 응모작·당선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대부분이 기혼 여성(주부)이자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문학화했다는 사실이다. 수필 부문에서는 세 편이 예선을 통과했는데, 심사평에 따르면 장향란의 「샐러리맨의 아내」는 "끝없는 가사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주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무력감"을, 최윤희의 「맞벌이 유감」은 "결혼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신혼의 여성이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곱씹어 보는"[42] 글이었다고 한다. 또한 수필 부문 가작 「동행자」는 울산대 가정관리학과 교수인 정민자가 자신과 다른 계급 여성인 생선 장수 아주머니와의 만남을 소재로 한 글이다. 시 부문 가작 1위 역시 「날 아세요? 결혼 일기 1」에는 반복되는 주부의 노동·일상으로 인해 자아를 상실한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

날 아세요?
하고 물으면 당신은
미쳤군 하면서 화를 내거나
그저 피-ㅋ 웃겠지요
정확히 반복되는 일들

자다가 세 번 쯤 아이를 쉬 시키는 것
아침밥 차리기 전 시간을 벌겠다고
아이를 T·V 뽀뽀뽀 프로 앞에 앉혀 놓고
잽싸게 빨래를 하면서 청소하고-

그 속도 만큼
난 크고 빠르게 넘어진다
이 정확히 반복되는 일들 틈새로
아끼워 놓은 시간이
새어 나가고

날 아세요?
하고 물으면
거울 앞에서 머리 빗다
짧게 일그러지는 얼굴.

—「날 아세요?-결혼일기 1」 전문

수기 부문 가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6년이나 다닌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사표 쓰기를 강요당하는 사무직 여성의 고통을 쓰고 있다. 이 수기에 따르면 저자 유명숙[43]이 다니는 회사에는 '결혼을 앞둔 여

41 위와 같음.
42 위와 같음.

성 노동자는 사표를 쓴 후 1년간 촉탁직원으로 다녀야 한다'는 관례가 있었지만 1988년 4월 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이후 사규에 있던 해당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그녀는 결혼 이후에도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여겼으나, 사표 쓰기를 거부하자 회사는 책상만 내주고 일을 주지 않거나 건물 청소를 시키는 등 오늘날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여러 수법을 통해 사표를 유도하기에 이른다. 결국 저자는 "3년간 다니겠다. 그 기간동안에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 만약 아기를 낳을 때는 출산과 동시에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44]를 쓰고 나서야 전산실로 돌아가게 된다. 그럼에도 저자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노력함으로써 '여사원 정년 58세'를 쟁취하자는 목소리로 수기를 끝맺는다.

4 '일하는 여성'에 관한 보도·재현

4.1 남녀고용평등법과 취업 차별 보도

여성문학상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시기 성폭력·강간 문제만큼이나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던 것은 바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가정, 일터, 법 제도의 변화였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은 1980년대 여성입법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와 진전 중 하나로 평가된다. 1983년에는 이와 관련한 중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미혼 여성노동자 이경숙이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결혼퇴직을 전제한 판결을 받게 된 사건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여성전화교환원 김영희가 차별적 조기정년 적용으로 퇴직을 통고받은 사건을 계기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위한 운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한다.[45] 장미현에 따르면 1980년대에 들어 '취업 여성'이 진출하는 직종이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서비스직 등으로 확대되고 그에 관한 논의 역시 다변화되면서 여성 취업자를 늘리고 직종을 개발하려는 1970년대의 담론이 점차 고용차별 폐지 쪽으로 이

43 5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저자는 자신이 여성신문 교육문화원 여성학 강좌 1기를 수강했으며, 9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기능인이자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44 「"여성 문학상" 수상작품-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성신문』 제52호, 1989.12.8.

45 김엘림, 「1980년대 이후 여성입법운동의 전개와 성과」, 『여/성이론』 제10호, 도서출판여이연, 2004 참조.

동하게 되지만, 고용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폐지라는 방향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기까지는 수많은 개별 사안에 대한 투쟁과 담론 투쟁이 존재했다.[46] 『여성신문』은 바로 그러한 투쟁 사안을 보도하고 '일하는 여성'의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담론화하는 데 앞장서는 매체였다.[47]

실제로 독자에게 상담 사연을 받아 답변과 함께 싣는 〈여성신문 상담실〉 초창기에는 시어머니, 남편, 어머니, 아들 등 주로 가족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임금 인상(19호), 결혼 퇴직(23호, 55호), 파업-무노동 무임금(24호), 생리 휴가(26호), 월급 인상 거부(34호), 사직서 거부(36호), 임신 퇴직(38호), 노조 내 여성부장 역할(47호)과 같은 구체적인 노동 문제를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는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던 노동 현장의 성차별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담론적·운동적 실천이 활발했던 당대 상황과 함께, 동시대 여성주의적 실천에 여성 독자들이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성신문』이 '일하는 여성'의 현실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일하는 여성 주체에 관한 보도, 두 번째는 법 제정 및 취업 차별 철폐에 관한 보도이다. 이 장에서는 연재 기획 지면 ①여성 취업 차별 현장 ②일하는 여성 ③여성일터(여기가 내자리)에 초점을 맞추되, 주요 단신 기사 및 특집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창간호에서부터 1년간 꾸준히 추적 보도될 정도로 초기 『여성신문』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48] 창간호 특집 '한국경제 현실과

---

46 장미현, 「"일할 권리를 청구합니다"-1980년대 전반기 고용차별 비판과 여성들의 실천-」, 『사학연구』 제138호, 한국사학회, 2020, 355-356쪽.

47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를 통해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일-가족 문제'에 관한 담론 변화를 추적한 신경아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 이후 기혼 취업여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주요 언론이 형성한 담론은 여성의 취업이 양육과 내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성의 의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신경아, 「산업화 이후 일-가족 문제의 담론적 지형과 변화」, 『한국여성학』 제23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7의 2장 '제 2시기(1970년대 중반 - 1980년대 말)-기혼여성노동자 집단의 형성과 일-가족 문제의 담론화'를 참조.

48 『여성신문』 16호에 정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호하게 정의되었

여성문제-여성의 일과 삶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외대 경제학과 교수 김애실(논설위원),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조은(논설위원),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조형(편집위원)이 각각 글을 실었는데, 이들은 모두 고용 기회 차별, 취업 후의 불평등에 더하여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부담을 '여성의 일'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1980년대 말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양육과 가사 노동을 비롯한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가 여성의 취업 및 차별 철폐와 함께 의제화되는 상황이 자리한다.[49] 여기에 더하여 취업 차별 의제에서 '여대생' 역시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대생의 수적 증가와 달리 그녀들이 졸업후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1986년 두 여대생이 취업 문제로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각 대학 총여학생회 산하에 취업대책위원회가 특별 조직으로 신설되기에 이른다.[50]

다시 말해서 1980년대 말 '취업 여성'의 문제는 결혼 여부를 떠나, 또 사무직이냐 서비스직이냐를 떠나 여성 전체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성들은 "법보다 더 무서운 차별의 벽"[51]에 부딪혔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성신문』에는 '여성 취업 차별 현장'이 다섯 번에 걸쳐 연재된다.

던 차별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것,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나아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명시한 것, 분쟁 시 분쟁해결 당사자의 범위를 노동조합까지로 넓히고 해결 기간을 명시한 것 등이 해당된다. 「제1백45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고용평등법 개정 주요내용」, 『여성신문』 제16호, 1989.3.24.

49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5년 41.9%에서 1990년 47.0%로 증가하는데, 그중에서도 기혼여성의 참여율이 41.6%에서 46.8%로 증가하여 미혼 여성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옥, 「사회적 재생산을 통해 본 발전국가의 재해석」, 『여성학연구』 제22권 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2, 85쪽.

50 원혜빈, 앞의 글, 77쪽. 『여성신문』 47호에 실린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진로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81%가 취업을 원했으며, 여성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40%가 결혼과 육아, 31%가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였으며, 여성 자신의 의식 및 능력 부족은 각각 16%, 4%로 매우 낮았다. 「경제적 자립위해 취업 60%-전국 여대생 1천 5백명 의식조사 결과」, 『여성신문』 제47호, 1989.11.3.

51 「남녀고용평등법은 '종이 호랑이'-'남자에 한함' 차별딱지 여전, 병역 '면제자' 해석 분분」, 『여성신문』 제48호, 1989.11.10.

호	연재 제목	기사 제목
48	① 모집·채용	남녀고용평등법은 '종이 호랑이' -'남자에 한함' 차별딱지 여전, 병역 '면제자' 해석 분분
		"취업차별 해결 여성의 단결이 첩경" -(주)신도리코 차별철폐 항의시위 벌인 김보성 양
49	② 임금·배치·승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해당 무(?)' -남녀간 분리호봉체계, 배치·승진상 차별 저임금 부채질
		모범사례-여직원 성차별문제 남자직원과 함께 풀어야 -(주)현대해상화재보험 이영희 노조부위원장
50	③ 결혼퇴직 ·모성보호	고평법 이후 기업들 '촉탁제' '시간제' 근무 등 편법사용 급증
		"촉탁안에 더이상 속지 말아야" -대한투자금융노조 서금주 여성부장
53	④ 여성채용거부와 남녀고용평등법	법 개정에 앞서 차별관행 사라져야 (이은영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54	⑤ 여성에게도 문제는 있다	취업준비-"직업선택시기 너무 늦어" (김농주, 연세대 취업담당관)
		근무자세-"여직원 스스로 일의 한계지워" (김준산, (주)대우 인사부 차장)
		평생노동의식-결혼퇴직에 완강히 거부해야 (정강자, 전국사무금융노련 전문위원)
		차별에 대한 해결자세-주체적·조직적 노력 미흡 (한상실, 여성민우회 상담부장)

[표3] 〈여성 취업 차별 현장〉

흥미로운 점은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보도하고 여성 개인의 노력과 각성을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대해상화재보험노조, 대한투자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노련, 여성민우회의 목소리를 통해 집단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논조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이제껏 취업문제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여학우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취업차별문제는 여학우들의 '단결'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52]는 연세대 총여학생회 교육부장 김보성의 발언이

52 「"취업차별 해결 여성의 단결이 첩경"-(주)신도리코 차별철폐 항의시위 벌인 김보성 양」, 『여성신문』 제48호, 1989.11.10.

나 “직장 내 성차별 문제는 노조를 통해 해결하는게 가장 확실하다. 그만큼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조활동과 남자직원과의 화합이 중요하다. (…)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현실화는 노조를 토[통]한 집단적인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을 위한 결집된 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는 이영희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부위원장의 발언은 여성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남성 취업/인사 담당관들의 논조와 극명하게 구별된다. 이는 『여성신문』의 ‘운동성’이 차별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직장문화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시각으로 견지되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4.2 일하는 여성을 긍정하기-〈일하는 여성〉과 〈여성 일터〉

〈일하는 여성〉은 여성 인물 사진 한 장과 짤막한 설명을 곁들이는 사진 연재 지면으로 0호(1988.10.28.)부터 37(1989.8.25.)호까지 지속되었다.[53] 주목할 점은 앞서 여기서 ‘일하는 여성’으로 선택된 여성들이 대부분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여성, 노점상, 일용직 여성 등 하층계급 중·노년 여성이었다는 사실이다.

호	사진 속 인물	사진기자
0	모래지게꾼 장추자 씨	임수현
1	호떡장사 김상순 씨	
2	농사꾼 천수남 씨	
3	노리개 만드는 배경숙 씨	박효신
4	고속버스터미널 노점상	박효신
5	남대문시장 남인심 씨	
6	취로사업장에서	박영숙

호	사진 속 인물	사진기자
19	거리의 찻집 유경자씨	
20	떡장사 어머니	
21	생선장사 최승애 씨	박성언
22	휴지 줍는 박옥희 씨	박상언
23	버스운전기사 유병희 씨	
24	남원 토산품 행상 김이분 할머니	
25	차닦는 우영미 씨	박성언

53 어떤 호에는 사진기자의 이름이 생략되기도 했는데, 9호부터 박성언 기자가 전담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연재가 종료된 이후 박성언 기자는 일부 호의 표지 사진을 담당하는데, 40호의 고추 파는 아주머니, 50호의 배추를 다듬는 아주머니 사진 등은 〈일하는 여성〉의 연장선에 있는 표지 사진이라 할 수 있다.

7	순대국밥 '부산집' 어머니	박영숙
8	채 파는 복남이 할머니	박영숙
9	빌딩 청소원 이옥련 씨	박상언
10	일 복 많아 일복네라	박성언
11	떡장사 강정례씨	박성언
12	가락동 수산시장 김순희씨	
13	서초동 꽃마을 한예자 씨	박성언
14	봄비 속에 꽃파는 어머니	박성언
15	식당 주방장 김동겸 씨	박성언
16	계란장사 장경순 씨	
17	휴지통 청소원 이명순 씨	
18	스웨터 시다 일하는 강주현 씨	박상언

26	좌석버스표 판매 김순이 씨	박성언
27	남한산성 더덕장사 백옥희 씨	박성언
28	공사판 노동자 이춘우 씨	박성언
29	신문배달 어머니	박성언
30	남대문 꽃노점상	박성언
31	풍선장사 어머니	
32	아이스크림 장사	박성언
33	채소 장사 어머니	박성언
34	명동의 음료수 파는 어머니	
35	파 다듬는 할머니	
36	채소 파는 어머니	박성언
37	수박 파는 어머니	박성언

[표4] 〈일하는 여성〉

"손발이 얼어 들어오는 영하의 날씨나 푹푹 찌는 무더위나 하루도 거름이 없이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이 어머니는 부지런함과 끈기가 삶의 밑천이다. 이 자리에서 아이를 공부시켜 시집 장가까지 보내었으니 이 흙바닥에는 나의 땀과 한숨이 얼마나 배었을꼬"[54]라던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기가 무척 어려웠다. 욱씬거리는 어깨를 몇번 주무르고 나선 농수산물 장터에서 고르고 골라 차에 태운 애띤 야채들. (…) 시큰둥하게 돌아서는 아파트 주부들 등 뒤에서 어린 배추들이 하루의 피로처럼 시들어 버릴 저녁때를 아직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55]라는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지면에서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억척스런 우리의 어머니"[56]의 모습과 적은 벌이에도 불구하고 '일'을 대하는 근면한 태도가 강조되었다.

〈일하는 여성〉이 보여준 이 같은 여성 민중 재현은 양면적인 효과를 발휘한

54 「남대문 꽃노점상」, 『여성신문』 제30호, 1989.6.30.
55 「채소 장사 어머니」, 『여성신문』 제33호, 1989.7.21.
56 「호떡장사 김상순 씨」, 『여성신문』 제1호, 1988.12.2.

다. 하층계급 여성의 넉넉하지 않은 사정, 그럼에도 고된 노동의 무게를 내세우거나 삶을 비관하지 않는 겸허한 태도, 생존을 위한 노력에 대한 사진과 글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시화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노점과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 목소리는 지면의 배치 및 분량상 거의 등장할 수 없거나 기자의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드러난다. "내 이름? 노점상이여.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이름을 낸다?"[57]고 말하는 여성, 한강변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름모를 아낙네"[58]는 목소리 없이 사진의 피사체로만 등장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진이 어떤 지면에 배치되는가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22호에는 남한산성 관리소에 고용되어 하루 종일 산성 부근의 휴지를 줍는 박옥희 씨의 사진이 수록되었는데, 같은 지면에 1980년대 초 아파트 문화가 형성되며 잠시 인기를 끌었던 가정주부의 '홈드레스'가 외면받고 있는 현상, 백화점 할인 기간 제한, 에어컨 사용 요령 등이 배치되었다. 다시 말해서 여성 농민·빈민·노동자와 중산층 여성을 아우르려는 『여성신문』의 포괄성은 〈일하는 여성〉 코너의 재현 대상인 하층계급 중·노년 여성을 오히려 관습적인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대상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일하는 여성〉과 달리 11호(1989.2.17.)부터 37호(1989.8.25.)까지 연재된 〈여성 일터〉에서 '일(자리)'로 규정되었던 것은 주로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이었다. 이 지면은 대체로 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여성들이 수행하는 일의 내용이나 업무 시간, 임금 수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숙련된 업무 능력의 필요성과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여성들의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나, 얼마나 많은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지를 여성의 시각에서 풀어냈다.

호	직종	제목
11	간호사(전덕례, 서울대학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전문성 살리려면 근로조건 개선 필요 -"죽음에 무딜거라지만 갈수록 견디기 힘든 거예요"

57 「일하는 여성-고속버스터미널 노점상」, 『여성신문』 제4호, 1988.12.23.

58 「일하는 여성-취로사업장에서」, 『여성신문』 제6호, 1989.1.6.

12	114 안내원(최미나, 32세)	“목소리만으로 나이, 기분 등을 알 수 있지요” -심야 성적 모욕 전화 참을 수 없어
13	유치원 교사(김은미, 29세)	아이들 좋아하는 것이 필수조건 -교사대우 못받는 임금에 사기떨어져
14	비서(박인숙, 31세)	“잘 빚은 도자기, 질그릇 쓰듯” -경영자들, 인력 제대로 활용 못해
15	의상 디자이너(노현정, 33세)	“신들린 듯 작품이 터질 땐 희열” -화려하지만은 않은 육체적·정신적 중노동
16	미용사(오순애, 35세)	“미용사는 끼가 있어야 돼요” -경력 3~4년은 돼야 수입·기술 자리 잡혀
17	광고디자이너(황희숙, 29세)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필수조건 -광고회사 여성디자이너 10%에 그쳐
18	조사원(이선화, 27세)	자유로운만큼 책임감과 끈기 요구 돼 -앞으로 전문 유망직종으로 각광 (이미숙 기자)
19	전산사식(황숙이, 25세)	인쇄·출판문화 선도하는 활자의 매력 -새로운 일인만큼 선두주자로서 어려움도 커
20	도서관 사서(이영숙, 30세)	까다로운 분류는 주관이 뚜렷해야 -남녀차별 없고 보람도 커
21	사진제판(김수연, 27세)	“최첨단 인쇄업 긍지 높아” -숙련직 임금책정 비교적 높은 편
22	사보기자(정수연, 26세)	사보편집 여성에게 인기 높아 -사내언론 차원 넘어 교양지로 탈바꿈 (정혜옥 기자)
23	경리(박향란, 25세)	부가세계산, 장부정리 쉽지 않아 -일에만 파묻히는 대기업보다 인간적 (이미숙 기자)
24	은행원(양미화, 25세)	여성진출, 부당노동 시정 돋보여 -앉을 시간없지만 손님 만족땐 가장 보람
25	머천다이저(권순향, 28세)	제조원과 판매원 연결이 주업무 -자기나름대로 일 추진할 수 있어요 (구소연 기자)
26	도배사(김말여, 서울YWCA 기능사협의회 회장)	“공사현장을 누비며 일로 승부합니다” -숙련도에 따라 소득도 달라 (정혜옥 기자)
27	문구 디자이너(이애리, 32세)	기획, 판매 전과정 속에서 디자인 구상 -승급에 남녀차이 없이 능력만 있으면 돼요 (구소연 기자)
28	영양사(김승희, 27세)	급식관리, 환자 식사 교육이 주업무 -병의 회복에 도움줄 수 있어 기뻐요 (구소연 기자)
29	컴퓨터 시스템 자문인 (최영선, 39세)	철저한 전산 ‘쟁이’ 의식 필요 -전산에 관한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일담당

30	회계사(서지희, 28세)	여성에게 장래성 있는 전문직이예요 -회계감사, 경영·세무자문이 주업무
31	약사(이상윤, 39세)	기계적인 중노동에 회의 일기도 -양품광고는 단지 판매원으로 전락시켜
32	결혼상담원(유영애, 43세)	30세 이상의 기혼여성에게 적합 -사람을 다루는 일이 어렵지만 인격적 성숙에 도움
33	사법서사(고형원, 52세)	이해해 주고 포괄적인 일처리, 여성에 적합 -형사·가사·행정 사건의 법적처리 도와주는 일
34	조리사(안인자, 31세)	올림픽 후 유망기능직종으로 부상 -직업의식 없이는 환영받지 못해
35	동시통역사(이화실, 33세)	시간제, 고소득 여성에 인기 -국제회의, 세미나 등서 외국어 통역
36	의류 검수인(유호숙, 25세)	비전공 여성 환영하는 패션 영역 -원사, 재봉, 염색, 뒷손질 등 하자여부 검품
37	사진기자(김성민, 26세)	촌각 다투며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 -채용·비공개적이어서 진출 애로

[표5] 〈여성 일터〉

이와 같은 지면은 여성 선배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일자리에 관한 정보가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유되는 현실에서 구직 중인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기에 〈여성 일터〉에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더하여 일터 내의 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란히 수록될 수밖에 없었다. 관련한 내용으로는 남성 직원들과의 호봉 및 승진 차별(비서, 광고디자이너, 컴퓨터 시스템 자문인, 은행원 등)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며, 재직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강제 각서를 요구받기도 한다(유치원 교사)는 이야기도 실린다. 결혼상담원 유영애는 이화여대 도서관학과를 졸업 후 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나이 든 여성에 대한 눈총으로 그만둔 후 결혼상담원으로 전직했음을 밝혔다.

성차별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우리가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려면 우선 일에서 남자들에게 뒤져서는 안돼요"[59]라던가 "여직원들에겐 지방출장

59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필수조건-광고회사 여성디자이너 10%에 그쳐」, 『여성신문』 제17호, 1989.3.31.

등을 잘 보내지 않아 정씨는 스스로 출장보내 줄 것을 요구”[60]한다는 등, 자신을 채찍질하여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야 한다는 의식이 엿보이기도 한다. 또한 “육체적인 힘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반면, 지적 능력과 섬세하고 꼼꼼한 성향을 요구하는 첨단 분야가 있어 전문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시해 주고 있다.”[61]거나 “특히 법률보다 인간적 이해나 조정이 더 필요한 이혼이나 소년사건, 재산상속, 호적 사건등과 같은 가정법률 문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맡으면 더 잘 해낼 영역이다.”[62]와 같은 발언은 자칫 성별분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으나,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긍정함으로써 여성이 소수인 직업 분야에 활발한 진출을 독려하려는 목적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 일터〉 연재가 끝난 후 39호(1989.9.8.)부터 47호(1989.11.3.)에는 〈여기가 내자리〉[63]라는 코너가 신설되는데, 형식상 똑같은 편집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10년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는”[64] 코너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여성 일터〉의 후속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 일터〉가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하는 성격이 짙었다면, 〈여기가 내자리〉는 차별적인 노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여성 노동자들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

60 「사보편집 여성에게 인기 높아-사내언론 차원 넘어 교양지로 탈바꿈」, 『여성신문』 제22호, 1989.5.5.

61 「철저한 전산 ‘쟁이’ 의식 필요-전산에 관한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일담당」, 『여성신문』 제29호, 1989.6.23.

62 「이해해 주고 포괄적인 일처리, 여성에 적합-형사·가사·행정 사건의 법적처리 도와주는 일」, 『여성신문』 제33호, 1989.7.21.

63 〈여기가 내자리〉는 38호부터 연재될 것으로 예고되었으나 39호부터 시작되었다. 40호에는 원래 〈여기가 내자리〉가 실려야 할 위치에 「어느 여교사의 편지-“왜 징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출근길을 막은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이 실린다. 이는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8월 21일 직위해제된 최선숙(33세) 교사가 투고한 글을 실은 것으로, 투고된 편지의 분량과 성격을 고려하여 〈여기가 내자리〉 위치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64 「알림」, 『여성신문』 제38호, 1989.9.1.

호	제목
39	“방송일은 즐겁지 않으면 못해요” -아나운서 경력 28년째 맞는 임국희 씨
41	“죽었다 태어나도 소리하겠소” -‘쓰리랑 부부’의 ‘북치는 할머니’ 신영희 씨
42	“시장바구니 들고 찾는 도서관 되어야” -사서경력 25년, 육군사관학교 열람과장 채희군 씨
43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나누기 23년” -한국선명회 유일한 여성국장 정해원 씨

호	제목
44	“이세상 홍보업무는 다 해봤어요” -삼성그룹 최초의 여성과장 김연진 씨
45	“여성은 세 배 일해야 본전이예요” -방송계 터줏대감 KBS 교양국 김영희 제작위원
46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말 제일 싫어해요 -16년 외길, 남영나이론 정명순 디자인 실장
47	“무엇보다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고려문예의 ‘강한’ 여성, 단화자 전산실장

[표6] 〈여기가 내자리〉

하지만 근속 햇수가 오래된 여성 노동자의 사정 역시 〈여성 일터〉에 드러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삼성그룹 여성과장 김연진은 극동방송 아나운서로 2년간 근무했으나 결혼퇴직제에 의해 회사를 나와야 했으며, 다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보험 외판원, 할부책 판매와 같은 일자리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력직 여성들은 “29명의 여사원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남자 사원에 버금가는 직업관,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늘 강조”[65]하고, “‘결혼했기에’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요. 체력이 좀 딸리기는 해도, 밤샘이나 과중한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해내죠 (…) “여성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고정관념이 여성들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66]라고 말한다. 여성들의 개별적인 각성과 노력은 차별적인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여성신문』에서 ‘일하는 여성’을 보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이후에도

65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말 제일 싫어해요-16년 외길, 남영나이론 정명순 디자인 실장, 『여성신문』 제46호, 1989.10.27.

66 「“무엇보다 내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죠”-고려문예의 ‘강한’ 여성, 단화자 전산실장」, 『여성신문』 제47호, 1989.11.3.

존속하는 일터에서의 성차별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리에서 일하는 여성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근로 여성', '직장 여성', '취업 여성', '여성 노동자', '취업주부' 및 취업을 앞둔 '여대생'은 지칭하는 존재가 겹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하는 주체의 형상이지만, 이들 주체 및 관련 언설들이 상당한 지면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비로소 일을 하는 사회적 존재임이 각인되고 그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터의 규칙과 문화, 법이 재구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신문』은 '일하는 여성'의 구체적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주의적 담론을 만들고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5 결론-'지면을 통한 여성운동'과 그 현실적 조건

『여성신문』이 1988년 창간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시기부터 기층 여성에서 지식인 여성에 이르는 각계각층, 부문별 여성운동의 축적, 이를 통한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진전, 여성학의 발전, 페미니스트 주체의 형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여성 정론지'의 독자층이 형성될 수 있으리란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여성신문』은 이러한 여성운동의 성장과 대중화를 발판으로 삼으면서 등장하였으며, 다시 이들의 삶의 경험과 운동적 실천의 성과를 종합하여 전달하는 여성주의 대안매체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 '지면을 통한 여성운동'이라는 여성운동의 방식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기 『여성신문』에는 서로 상충하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 한쪽은 민주화운동과 여성운동을 '급진화'하려는 힘이며, 다른 한쪽으로는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하는 힘이다. 창간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여성신문』이 마주한 현실은 "중산층의 소비지향적인 구매자들에게 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광고주들의 냉담함."[67]이었다. 게다가 방향성의 측면에서도 "소외된 여성들의 문제보다는 일반 중간층 여성들이 가지는 문제

67 「창간 1주년 기념사-드디어 여성정론지로 섰습니다」, 『여성신문』 제51호, 1989.12.1.

들을 다루는데 치중해온 감이 없지 않다"(양동윤 한림지국장), "너무 중산층여성만을 의식하는 듯 싶어 안타깝다"(김보성 연세대 총여학생회), "평범한 가정주부의 입장에선 지나치게 활동하는 여성이나 여성노동자에만 촛점을 맞춘듯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장문자 주부)[68]와 같이 상반된 의견들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이 운동이 대변하는 여성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에 따라 첨예하게 논쟁하고 분화되었던 여성운동의 경로를 고려할 때, '전체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여성신문』의 목표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기 힘든 것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어긋난 평가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면 여성 노동자, 여성 빈민, 여성 농민, 주부, 지식인 여성, 여대생, 사무직 여성 등 다양한 위치에 놓인 여성의 삶과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초기 『여성신문』의 가장 큰 특징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운동성'과 '대중성'의 팽팽한 긴장은 『여성신문』이 '여성주의' 언론으로 존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신문의 체재와 지면 기획, 지면 외의 문화 기획 등을 통해 초기 『여성신문』의 전개 과정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으며, 나아가 '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기획 연재 지면을 분석하였다. '지면을 통한 여성운동'의 역사가 깊은 만큼, 신문 매체의 중요한 지면 중 하나인 '문화란' 등 본고에 담지 못한 주제에 관한 탐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여성신문』 0호(1988.10.28.)~55호(1989.12.29.)

2. 단행본

김효선 편, 『세상을 바꾼 여성 사건 101가지-여성신문 뉴스 20年史, 한국 여성

68 「여성신문에 바란다-"평등사회의 구현과 민주화에 앞장서길"」, 『여성신문』 제51호, 1989.12.1.

20年史』, (주)여성신문사, 2008, 2-5쪽, 17쪽.
김효선 편, 홍선희·송수산·이하나·진주원·이유진, 『세상을 바꾼 101가지 사건』, 여성신문사, 2018, 12-13쪽; 212-213쪽.
오혜진 외, 『원본 없는 판타지』, 후마니타스, 2020, 236-241쪽.
유선영, 『여성과 언론-여성보도 개선방안 연구-중앙일간지와 〈여성신문〉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언론재단, 2002, 69-73쪽.
이계경, 『세상을 바꾸는 신나는 리더』, 여성신문사, 2007, 77쪽.
이정자, 『이 얼마나 멋진 배움인가』, 여해와 함께, 2025, 140쪽, 156-158쪽.
한국여성개발원 편, 『여성백서 1991』, 한국여성개발원, 1991, 128-131쪽.

3. 논문

강이수,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 연구』 제7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7, 1-35쪽.
김명혜, 「여성주의 저널리즘의 현황과 확산 전략」,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2001, 429-435쪽.
김엘림, 「1980년대 이후 여성입법운동의 전개와 성과」, 『여/성이론』 제10호, 도서출판여이연, 2004, 11-33쪽.
김정은, 「1980년대 여성주의 출판문화운동의 네트워킹 행위자로서 고정희의 문화적 실천」,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37-77쪽.
박인혜, 「'여성인권운동'의 프레임과 주체 변화에 대한 연구-〈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375쪽.
신경아, 「산업화 이후 일-가족 문제의 담론적 지형과 변화」, 『한국여성학』 제23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07, 5-45쪽.
원혜빈, 「1980년대 '여학생'의 문화정치-남녀공학 대학 여학생 교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140쪽.
이정자, 「1970년대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여성인간화 교육」, 『젠더연구』 제19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4, 1-18쪽.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제47집,

상허학회, 2016, 409-454쪽.
임종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제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91-136쪽.
장미현, 「"일할 권리를 청구합니다"-1980년대 전반기 고용차별 비판과 여성들의 실천-」, 『사학연구』 제138호, 한국사학회, 2020, 351-391쪽.
최이숙, 「1960~1970년대 한국 신문의 상업화와 여성가정란의 젠더 정치」, 『한국언론학보』 제59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15, 287-323쪽.
황오금희, 「여성주의 매체와 여성운동」, 『여/성이론』 제8호, 도서출판여이연, 2003.6, 32-80쪽.
홍지혜, 「1980년대 여성학·여성운동계 출판물과 여성지의 교착(交錯)-주부와 '가정교양', 『여성동아』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78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2, 47-83쪽.

4. 기타

「대기업 주부교실 확산」, 『조선일보』 1988.4.1.
김미경, 「주부 대상 취업강좌 인기」, 『한겨레』, 1989.10.11.
김유경, 「초대석-창간1돌맞은 週刊 「여성신문」 발행인 李啓卿씨-"여성의 人間化", 行間마다 큰목소리」, 『경향신문』 1989.12.7.
이은경, 「'여성신문'의 창간 작업」, 『여성신문』, 2007.11.16.

Abstract

A Study of *The Women's News* (1988-1989)
-The Birth of "Women's Liberation Journalism" and Its Editorial Strategy

Jeong, Goeun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inaugural year of *The Women's News* to reconstruct its history and examine its role and significance as a feminist media outlet. Founded in the post-democratization era to amplify the voices of women historically marginalized in

Korean society and media, the newspaper positioned itself as an alternative platform representing all women. Balancing its identity as a “women’s liberation” publication resisting the dehumanization of women with its commitment to “popular appeal” added layers of complexity to its early development. To effectively fulfill its role as a feminist newspaper, *The Women’s News* introduced new formats for page layout and cover design, and actively carried a variety of feminist special features. It also established an Education and Culture Center to provide general education for women and inaugurated the Feminist Literature Award. Furthermore, *The Women’s News* actively reported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labor market in the late 1980s. Through this, it documented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workplace rules, culture, and laws centered on the experiences of working women, and played a role in shaping feminist discourse on women’s work. Ultimately, these endeavors established *The Women’s News* as a pivotal medium synthesizing the everyday lives and voices of contemporary women with the political praxis of the feminist movement.

Key words: *The Women’s News*, feminist media, alternative media, Feminist Literature Award, Korean Christian Academy, Equal Employment Act, working women

논문제출 / 2026.07.15.
심사완료 / 2026.08.05.
게재확정 / 2026.08.06.